

[2024년 대전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연구보고서]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역량 분석

연구책임자: 이 빛 나 (대전전민고 교사)

대전교육정책연구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거두기 위해서 학생들은 심리적 자원을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업 중에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전반에 필요한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때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이 바로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학업 중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며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였을 때 이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학업의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실패감, 좌절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거나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통해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다시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성공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며 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의 자세를 지니고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실제 많은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들이 역경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학업적 성과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자아탄력성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Connell, Spencer, & Aber, 1994; Zimmerman & Arunkumar, 1994). 또 이러한 자아탄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연구들도 있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 인지적 문제뿐 아니라 정의적 요인 등 다양한 어려움이 그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업 성취도 수준별로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 밝힘으로써 자아탄력성 회복과 지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학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활동은 대부분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의 의사소통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부분의 수업 시간 활동은 교사의 설명, 즉 말하기와 듣기의 음성 매체를 통한 소통 활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책을 읽거나 그에 대한 생각을 쓰는 등 문자 매체를 통한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상대의 생각이나 사고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사고를 보다 정교하게 정립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임현주, 2014). 수학에서의 의사소통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Conneedy(1994)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성공적인 수학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어느 교과이든 간에 교육과 학습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전개된다(오미향, 2005).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서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한 능력 구성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의 수준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업성취도 수준별로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역량에 차이가 있다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

2. 연구문제

-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
-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의사소통역량에 차이가 있는가?
- 학업성취도, 자아탄력성, 의사소통역량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한 학습의 결과이다. 즉 학습 과제를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달성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황혜자, 최윤희 2003). 이러한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인지적, 정의적 요인이나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작용하며 개인의 학업 성취를 형성하게 된다(Block, 1982; Block & Kremen, 1996; 이나영, 2008).

자아탄력성은 긍정적인 적응과 대처 또는 조절과 관련되어 있으며 환경에 대처함으로써 자아 통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나영, 2008). 따라서 학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 등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서 학업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도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많은 편이 아니다.

자아탄력성과 유사한 개념인 자아존중감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다(이민상, 2005; 신지은, 2014; 서원석, 장재혁, 김석우, 2020; 반상진, 2024). 이들 연구에서 학업성취가 우수한 학생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학업 성취가 낮은 경우에는 자아존중감도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대처함으로써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한상단, 2012; 김형훈, 2023),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회심리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은주, 이시자, 2015).

이은희, 이혜진(2018)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학업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만족도가 높은 군은 낮은 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또 학업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아탄력성은 학업성취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내었다.

조한익, 이나영(2010)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성취가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외적 동기, 확인된 동기, 내적 동기, 학업성취가 전체 변량의 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효진, 김재철(2014)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성취가치, 자기조절, 학업성취, 학업 적응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자아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구조적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 자기 조절, 성취도에 대한 성취가치의 효과는 자아탄력성이 더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학습관련 인지적, 동기적 변인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의사소통역량과 학업성취도

성공적인 학업 및 직장, 일상생활의 전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의사소통능력이다.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을 통해 타인과 생각을 교류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의견을 조정하는(Rubin, 1990) 일련의 관계 지향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왕중산(2024)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밝혔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할수록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임영아(2024)에서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임영아는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눈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가 의사소통능력 및 눈치와 모두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정은선(2017)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과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제1차 대전교육중단연구 결과 자료를 제공받아 수행된 연구로 고등학교 2학년 2,983명이 참여하였다. 남학생은 1,454명이며 여학생은 1,529명이다.

2. 연구 절차 및 도구

제1차 대전교육중단연구를 목적으로 시행된 자료 수집은 대전시 내 초, 중, 고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1일(월)~2024년 7월 19일(금) 동안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학생 문항은 5개 영역, 77개 변수, 1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 예정 시간은 20분 이내이다. 학생 변인에 관한 문항 중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문항 4개,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는 문항 4개는 <표 1>과 같다.

<표 1>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역량 문항 내용

자아탄력성 요인	의사소통역량 요인
1.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1.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2.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2.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3.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3.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4.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응답 결과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학업성취도, 자아탄력성, 의사소통역량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학업성취도는 전체, 국어, 영어, 수학 영역에 대하여 이전 성적을 근거로 A-E까지 5개의 성취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SPSS 22.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를 산출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의사소통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기술 통계를 분석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업성취도와 자아탄력성, 의사소통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학업성취도와 자아탄력성의 관계

학업 성적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업성취도별(A-E수준) 자아탄력성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학업성취도 수준별 자아탄력성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	사 례 수	평균	표준 편차
E	238	2.92	0.96
D	891	3.20	0.79
C	1368	3.41	0.76
B	417	3.66	0.79
A	69	4.06	0.94
전체	2983	3.36	0.82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아탄력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6, 표준편차는 0.82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집단별로 자아탄력성 응답 평균을 살펴보면, 학업 성취도 A 집단에서 자아탄력성 응답 평균은 4.06이 나타났으며 B 집단은 3.66, C 집단은 3.41, D 집단은 3.20, E 집단은 2.92의 순이었다. 표준편차는 A, B, C, D, E 집단에서 각각 0.94, 0.79, 0.76, 0.79, 0.96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자아탄력성 결과도 순차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차이가 유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3>이다.

<표 3> 학업성취도 수준별 자아탄력성 차이

학업성취도 수준	비교 집단	평균차	표준 오차	유의 확률(p)
E	D	-0.29	0.05	0.00
	C	-0.49	0.05	0.00
	B	-0.74	0.06	0.00
	A	-1.13	0.10	0.00
D	E	0.29	0.05	0.00
	C	-0.20	0.03	0.00
	B	-0.45	0.04	0.00
	A	-0.84	0.09	0.00
C	E	0.49	0.05	0.00
	D	0.20	0.03	0.00
	B	-0.24	0.04	0.00
	A	-0.64	0.09	0.00
B	E	0.74	0.06	0.00
	D	0.45	0.04	0.00
	C	0.24	0.04	0.00
	A	-0.39	0.10	0.01
A	E	1.13	0.10	0.00
	D	0.84	0.09	0.00
	C	0.64	0.09	0.00
	B	0.39	0.10	0.01

A, B, C, D, E의 각 집단의 자아 탄력성 평균 결과는 다른 집단의 평균과 각각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A 집단은 자아탄력성 결과도 가장 높았으며, 성취도가 가장 낮은 E 집단은 자아탄력성 결과도 가장 낮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가 단계별로 높아지면, 자아탄력성 결과도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이다($p < .05$).

학업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학습자들은 학업에서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요인이 자아탄력성이다(이은희·이혜진, 2018). 자아탄력성은 학업 분야에서 좌절이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업 성취도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이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은희, 이혜진(2018)에 따르면 학업성취도와 자아탄력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은희(1997)는 자아탄력성과 국어, 산수, 자연, 체육, 미술 등의 과목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 차이를 연구한 김은주(2013)는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서행동문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이 대상이었던 이 연구에서는 중등학생에 비하여 자기 평가식 주관식 문항에서 자신을 보다 객관화하여 평가하기 어려워 자아탄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은 정서행동문제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항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번 문항은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이다. Block&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 중 2번 문항(‘나는 놀랐을 때 마음의 평정을 바로 찾는다’)과 유사한 문항으로 O’connell-Hoggins(1983)에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과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과 유사한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래 <표 4>는 기술통계를 나타낸 표이다.

〈표 4〉 학업성취도 수준별 자아탄력성 1번 문항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E	238	3.01	1.20
D	891	3.25	0.97
C	1368	3.43	0.93
B	417	3.69	0.98
A	69	4.14	1.06
전체	2983	3.39	1.00

학업성취도 수준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A 집단은 자아탄력성 1번 문항의 평균이 4.14, B 집단은 3.69, C집단은 3.43, D집단은 3.25, E집단은 3.01이었다. 표준편차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 순으로 1.06, 0.98, 0.93, 0.97, 1.20이었다.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낮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1번 문항의 결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5〉이다.

〈표 5〉 학업성취도 수준별 자아탄력성 1번 문항 차이

학업성취도 수준	비교 집단	평균차	표준 오차	유의 확률(p)
E	D	-0.24	0.07	0.021
	C	-0.41	0.06	0.000
	B	-0.68	0.08	0.000
	A	-1.13	0.13	0.000
D	E	0.24	0.07	0.021
	C	-0.17	0.04	0.002
	B	-0.43	0.05	0.000
	A	-0.88	0.12	0.000
C	E	0.41	0.06	0.000
	D	0.17	0.04	0.002
	B	-0.26	0.05	0.000
	A	-0.71	0.12	0.000
B	E	0.68	0.08	0.000
	D	0.43	0.05	0.000
	C	0.26	0.05	0.000
	A	-0.45	0.12	0.014
A	E	1.13	0.13	0.000
	D	0.88	0.12	0.000
	C	0.71	0.12	0.000
	B	0.45	0.12	0.014

학업성취도 A 집단부터 E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른 집단과의 평균 점수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놀라는 일을 갑자기 당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는 특성’ 또한 갖추고 있으며 학업 성취도 수준에 따라 이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갑작스럽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였을 때 빨리 회복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정의적 특성인 만큼 일상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태도가 학업에서 겪는 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항은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Block& Kremen(1996)에서 ‘호기심’의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질문에는 ‘나는 새롭고 특이한 상황을 다루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전에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들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익숙한 길보다는 새로운 길로 가보기를 좋아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학업성취도 수준별 자아탄력성 2번 문항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E	238	3.00	1.18
D	891	3.28	1.05
C	1368	3.45	.98
B	417	3.65	1.02
A	69	4.01	1.11
전체	2983	3.40	1.04

호기심과 관련된 2번 문항의 결과는 <표 6>이다. 학업성취도 A 수준의 집단은 2번 문항의 평균이 4.01, B 집단은 3.65, C 집단은 3.45, D 집단은 3.28, E 집단은 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수록 2번 문항의 결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별 평균의 차이가 통계상 유의한 것인지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7>이다.

<표 7> 학업성취도 수준별 자아탄력성 2번 문항 차이

학업성취도 수준	비교집단	평균차	표준 오차	유의 확률(p)
E	D	-0.27	0.07	0.011
	C	-0.44	0.07	0.000
	B	-0.65	0.08	0.000
	A	-1.00	0.14	0.000
D	E	0.27	0.07	0.011
	C	-0.17	0.04	0.006
	B	-0.37	0.06	0.000
	A	-0.73	0.12	0.000
C	E	0.44	0.07	0.000
	D	0.17	0.04	0.006
	B	-0.20	0.05	0.011
	A	-0.56	0.12	0.001
B	E	0.65	0.08	0.000
	D	0.37	0.06	0.000
	C	0.20	0.05	0.011
	A	-0.35	0.13	0.137
A	E	1.00	0.14	0.000
	D	0.73	0.12	0.000
	C	0.56	0.12	0.001
	B	0.35	0.13	0.137

학업성취도가 C, D, E 수준에 속하는 집단은 각각 모두 다른 집단의 평균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E 집단은 D집단보다 2번 문항의 평균이 0.272점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 E집단 평균이 C집단보다는 0.442점이 낮았고, B집단보다는 0.651이 낮았으며, A집단보다는 1.00점이 낮았는데, 이들 차

이는 모두 $P < .05$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학업성취도 A 집단과 B 집단에서의 평균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 즉 앞의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A 집단과 B 집단은 모두 이 부분에서 변별되지 않고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취도가 낮아질수록 이 문항이 갖는 변별력이 뚜렷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은 새로운 일에 호기심이 많고 도전적인 시도를 해보는 경향이 높으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항은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문항이다. 이 문항도 2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심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의 전체 평균은 3.46, 표준편차는 1.02로 나타났다.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집단 별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A집단에서는 문항 평균이 4.08로 나타났으며 B집단에서는 3.69, C집단에서는 3.52, D집단에서는 3.32, E집단에서는 3.05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취도가 낮아질수록 순차적으로 응답 결과 평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학업성취도 수준별 자아탄력성 3번 문항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E	238	3.05	1.17
D	891	3.32	1.02
C	1368	3.52	0.96
B	417	3.69	0.98
A	69	4.08	1.10
전체	2983	3.46	1.02

이러한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는 <표 9>이다. <표 9>를 보면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E집단의 결과는 다른 모든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 < .05$). C, D

집단의 경우도 다른 집단과의 평균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이 문항의 결과 차이가 분명하며, 학업성취도가 낮으면 문항에서의 응답 결과도 낮았다.

<표 9> 학업성취도 수준별 자아탄력성 3번 문항 차이

학업성취도 수준	비교 집단	평균차	표준 오차	유의 확률(p)
E	D	-0.26	0.07	0.011
	C	-0.46	0.07	0.000
	B	-0.63	0.08	0.000
	A	-1.02	0.13	0.000
D	E	0.26	0.07	0.011
	C	-0.19	0.04	0.000
	B	-0.37	0.06	0.000
	A	-0.76	0.12	0.000
C	E	0.46	0.07	0.000
	D	0.19	0.04	0.000
	B	-0.17	0.05	0.048
	A	-0.56	0.12	0.000
B	E	0.63	0.08	0.000
	D	0.37	0.06	0.000
	C	0.17	0.05	0.048
	A	-0.39	0.13	0.062
A	E	1.02	0.13	0.000
	D	0.76	0.12	0.000
	C	0.56	0.12	0.000
	B	0.39	0.13	0.062

다만 <표 9>에서 유일하게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집단은 A집단과 B집단이다. 이들은 모두 학업성취도가 높은 부류에 속하는 집단으로, 학업성취도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이 문항에서의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비교적 높은 집단은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을 즐기고 도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새로운 일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 도전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문항은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다. Block & Block(1980)에서 자아탄력성 문항 분석을 통해 분석해낸 자아탄력적인 아동의 행동 특성 중 자기 확신, 자기 수용 등의 자신감과 관련이 깊은 문항으로 볼 수 있다. Klohn(1996)의 경우도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로 자신감과 낙천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와도 관련이 깊다.

<표 10> 학업성취도 수준별 자아탄력성 4번 문항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E	238	2.59	1.17
D	891	2.97	1.02
C	1368	3.24	0.98
B	417	3.60	1.06
A	69	3.98	1.11
전체	2983	3.18	1.06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4번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18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1.06이다. 각 집단별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A집단에서는 3.98, B 집단에서는 3.60, C집단에서는 3.24가 나타났으며, D집단에서는 2.97, E집단에서는 2.59로 나타나, D집단과 E집단의 평균은 척도 중앙값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항도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문항 응답의 평균 결과가 낮은 것이다. 이들 평균의 차이가 집단별로 유의한지 사후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는 <표 11>이다.

<표 11> 학업성취도 수준별 자아탄력성 4번 문항 차이

학업성취도 수준	비교집단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p)
E	D	-0.38	0.07	0.000
	C	-0.65	0.07	0.000
	B	-1.00	0.08	0.000
	A	-1.39	0.14	0.000
D	E	0.38	0.07	0.000
	C	-0.27	0.04	0.000
	B	-0.62	0.06	0.000
	A	-1.01	0.12	0.000
C	E	0.65	0.07	0.000
	D	0.27	0.04	0.000
	B	-0.35	0.05	0.000
	A	-0.73	0.12	0.000
B	E	1.00	0.08	0.000
	D	0.62	0.06	0.000
	C	0.35	0.05	0.000
	A	-0.38	0.13	0.084
A	E	1.39	0.14	0.000
	D	1.01	0.12	0.000
	C	0.73	0.12	0.000
	B	0.38	0.13	0.084

학업성취도 낮은 편에 속하는 C, D, E 집단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집단과 모두 이 문항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업성취도 D인 집단이 E인 집단보다 이 문항의 평균이 높으

며, 학업성취도 수준 C 집단은 D 집단보다 이 문항 평균이 높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이다. 다만, 앞선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A와 B의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성취도 B 수준 이하의 집단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높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의지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는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명백하다. 다만 학업성취도가 B수준 이상으로 높으면 자아 탄력성은 집단 간 큰 차이 없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가 B집단 이하로 낮은 집단이라면 그 안에서 학업성취도별로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학업성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명백하게 낮아지므로 이들의 자아탄력성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자의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학업성취도와 의사소통역량의 관계

학업성취도와 의사소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생들은 학습의 과정에서 교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해야만 하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이해 및 표현 활동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학업 성취도의 수준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살펴본 결과의 기술 통계는 <표 12>이다.

<표 12> 학업성취도 수준별 의사소통역량 전체 문항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E	238	3.52	0.99
D	891	3.77	0.71
C	1368	3.90	0.69
B	417	4.08	0.71
A	69	4.29	0.85
전체	2983	3.86	0.75

의사소통 능력의 평균은 3.86, 표준편차는 0.75로 나타났다. 각각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A 집단의 경우에는 의사소통능력의 평균 결과가 가장 높은 4.29로 나타났다. B 집단에서는 4.08, C집단에서는 3.90이 나타났으며, D집단에서는 3.77, E 집단에서는 3.52의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평균으로만 비교할 때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으며,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의사소통역량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학업성취도 수준별 의사소통역량 전체 문항 차이

학업성취도 수준	비교 집단	평균차	표준 오차	유의 확률
E	D	-0.25	0.05	0.000
	C	-0.37	0.05	0.000
	B	-0.56	0.06	0.000
	A	-0.77	0.10	0.000
D	E	0.25	0.05	0.000
	C	-0.12	0.03	0.006
	B	-0.30	0.04	0.000
	A	-0.51	0.09	0.000
C	E	0.37	0.05	0.000
	D	0.12	0.03	0.006
	B	-0.18	0.04	0.000
	A	-0.39	0.09	0.001
B	E	0.56	0.06	0.000
	D	0.30	0.04	0.000
	C	0.18	0.04	0.000
	A	-0.21	0.09	0.305
A	E	0.77	0.10	0.000
	D	0.51	0.09	0.000
	C	0.39	0.09	0.001
	B	0.21	0.09	0.305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E 집단은 집단 A, B, C, D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다. 집단 D와 C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각각의 집단들과 결과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 다만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집단인 A와 그 다음으로 높은 B 집단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B 수준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집단과 의사소통역량에서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학업성취가 높아질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지나,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은 A 집단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B 집단과 변별이 되지 않았고,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욱 명확하게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명확하게 의사소통능력이 낮다는 것은, 학업성취도와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의사소통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역량을 묻는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문항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이다.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습은 수업 시간에 많이 이루어진다. 타인의 말을 잘 듣고 이에 귀를 기울이며 수용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수업 시간에 집중력 있게 학습하는 것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는 표 <표 14>에 나타나 있다.

<표 14> 학업성취도 수준별 의사소통역량 1번 문항 평균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E	238	3.48	1.09
D	891	3.80	0.80
C	1368	3.89	0.78
B	417	4.02	0.82
A	69	4.27	0.96
전체	2983	3.86	0.84

이 문항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은 3.86이며, 표준편차는 0.84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문항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A집단에서는 4.27, B집단에서는 4.02, C집단에서는 3.89, D집단에서는 3.80, E집단에서는 3.48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사소통 요인에 관한 응답 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평균의 차이가 의미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이다.

<표 15> 학업성취도 수준별 의사소통역량 1번 문항 차이

학업성취도 수준	비교 집단	평균차	표준 오차	유의 확률(p)
E	D	-0.32	0.06	0.000
	C	-0.41	0.05	0.000
	B	-0.54	0.06	0.000
	A	-0.79	0.11	0.000
D	E	0.32	0.06	0.000
	C	-0.09	0.03	0.129
	B	-0.22	0.04	0.001
	A	-0.47	0.10	0.000
C	E	0.41	0.05	0.000
	D	0.09	0.03	0.129
	B	-0.12	0.04	0.125
	A	-0.37	0.10	0.009
B	E	0.54	0.06	0.000
	D	0.22	0.04	0.001
	C	0.12	0.04	0.125
	A	-0.25	0.108	0.247
A	E	0.79	0.114	0.000
	D	0.47	0.104	0.000
	C	0.37	0.103	0.009
	B	0.25	0.108	0.247

이 결과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집단 E의 경우에는 다른 모든 집단에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E 집단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항목의 점수가 명백히 낮은 것이다. 다만, 학업성취도 A와 B집단, B와 C집단, C와 D집단 사이에서 이 문항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요인은 학업성취도 수준이 D인 집단부터는 바로 위 수준에 해당하는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명백한 것은 E집단과 같이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등급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 1번 문항의 결과가 함께 낮으므로 이들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 의사소통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고 이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결과는 학업에서의 학습 활동이 교수자의 설명이나 학습 동료의 의견을 듣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당연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최하위 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역량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항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이다. 첫 번째 문항이 이해와 관련된 문항이라면, 이 문항은 표현과 관련된 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표 16>이다. 전체 문항의 평균은 3.87이며, 표준편차는 0.83이다. 각 집단별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A집단에서는 평균 4.36, B집단에서는 4.17, C집단에서는 3.90, D집단에서는 3.74, E집단에서는 3.48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6> 학업성취도 수준별 의사소통역량 2번 문항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E	238	3.48	1.07
D	891	3.74	0.82
C	1368	3.90	0.77
B	417	4.17	0.76
A	69	4.36	0.92
전체	2983	3.87	0.83

이 문항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아질수록 문항의 평균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7>이다.

<표 17> 학업성취도 수준별 의사소통역량 2번 문항 차이

학업성취도 수준	비교 집단	평균차	표준 오차	유의 확률(p)
E	D	-0.25	0.06	0.001
	C	-0.41	0.05	0.000
	B	-0.69	0.06	0.000
	A	-0.87	0.11	0.000
D	E	0.25	0.06	0.001
	C	-0.16	0.03	0.000
	B	-0.43	0.04	0.000
	A	-0.62	0.10	0.000
C	E	0.41	0.05	0.000
	D	0.16	0.03	0.000
	B	-0.27	0.04	0.000
	A	-0.45	0.10	0.000
B	E	0.69	0.06	0.000
	D	0.43	0.04	0.000
	C	0.27	0.04	0.000
	A	-0.18	0.10	0.553
A	E	0.87	0.11	0.000
	D	0.62	0.10	0.000
	C	0.45	0.10	0.000
	B	0.18	0.10	0.553

<표 17>을 보면 A집단과 B집단의 평균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가 낮아질수록 표현적 측면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으면 그보다 더 낮은 집단과 의사소통능력의 유의한 차이가 현저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학업성취도가 높은 A와 B 집단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더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해’ 영역에 해당하는 1번 문항에 비해 ‘표현’에 해당하는 2번 문항은 전체적으로 수준별 변별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수행능력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분하여 볼 때 학습자들이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수월한 활동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말하기 훈련이나 연습 시간을 갖도록 하거나 논리적인 표현 방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 세 번째 문항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항목이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문항의 전체 평균은 3.86이고, 표준편차는 0.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평균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A집단은 평균 4.26, B집단은 평균 4.04, C집단은 평균 3.89, D집단은 평균 3.78, E집단은 평균 3.60으로 이 문항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문항의 평균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학업성취도 수준별 의사소통역량 3번 문항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E	238	3.60	1.10
D	891	3.78	0.85
C	1368	3.89	0.79
B	417	4.04	0.84
A	69	4.26	0.91
Total	2983	3.86	0.86

집단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표 19>와 같이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E집단은 D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집단에서도 E집단과의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과 차이가 분명하였다. C집단에서는 B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집단에서는 A, C 집단과 차이가 없고, 나머지 성취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A, B집단은 서로 간 특별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에 대한 이해 및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와 E집단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두 집단에서도 학업성취도 차이에 따라 결핍감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19> 학업성취도 수준별 의사소통역량 3번 문항 차이

학업성취도 수준	비교 집단	평균차	표준 오차	유의 확률(p)
E	D	-0.17	0.06	0.094
	C	-0.29	0.05	0.000
	B	-0.43	0.06	0.000
	A	-0.65	0.11	0.000
D	E	0.17	0.06	0.094
	C	-0.11	0.03	0.030
	B	-0.26	0.05	0.000
	A	-0.48	0.10	0.000
C	E	0.29	0.05	0.000
	D	0.11	0.03	0.034
	B	-0.14	0.04	0.055
	A	-0.36	0.10	0.018
B	E	0.43	0.06	0.000
	D	0.26	0.05	0.000
	C	0.14	0.04	0.055
	A	-0.21	0.11	0.424
A	E	0.65	0.11	0.000
	D	0.48	0.10	0.000
	C	0.36	0.10	0.018
	B	0.21	0.11	0.424

네 번째 문항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항목이다. 이 문항의 전체 평균은 3.85이며, 표준편차는 0.84이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평균을 살펴보면, A집단은 4.27, B집단은 4.09, C집단은 3.88, D집단은 3.77이며, E집단은 3.51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별로 문항의 결과 평균에 차이가 있으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0〉 학업성취도 수준별 의사소통역량 4번 문항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E	238	3.51	1.07
D	891	3.77	0.84
C	1368	3.88	0.77
B	417	4.09	0.80
A	69	4.27	0.90
전체	2983	3.85	0.84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표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집단인 A 집단은 그 다음으로 우수한 집단인 B집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집단과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성취도가 B인 집단은 A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과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집단의 경우에는 D집단과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집단과의 결과 차이는 의미 있었다. D집단에서도 C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E집단에서는 모든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E집단은 다른 집단에서와 이 문항의 결과 차이가 분명하였다. 즉,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의사소통능력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높은 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1〉 학업성취도 수준별 의사소통역량 4번 문항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	비교 집단	평균차	표준 오차	유의 확률
E	D	-0.26	0.06	0.000
	C	-0.36	0.05	0.000
	B	-0.57	0.06	0.000
	A	-0.76	0.11	0.000
D	E	0.26	0.06	0.000
	C	-0.10	0.03	0.067
	B	-0.31	0.04	0.000
	A	-0.49	0.10	0.000
C	E	0.36	0.05	0.000
	D	0.10	0.03	0.067
	B	-0.20	0.04	0.000
	A	-0.39	0.10	0.005
B	E	0.57	0.06	0.000
	D	0.31	0.04	0.000
	C	0.20	0.04	0.000
	A	-0.18	0.10	0.569
A	E	0.76	0.11	0.000
	D	0.49	0.10	0.000
	C	0.39	0.10	0.005
	B	0.18	0.10	0.569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의사소통능력이 낮다는 것은 타인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며 공감하고 입장을 헤아리는 능력은 학습의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과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수준과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처방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의사소통역량은 학업성취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습의 과정 자체가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의사소통 행위로 구성되기도 하며 학습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명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가 직접적으로 학습을 평가하는 장면에서 기능하기도 하며 프로젝트나 토론, 토의 활동에서 개별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은 학습의 과정과 모든 단계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학업성취도, 자아탄력성, 의사소통역량 상관 관계 분석

학업성취도와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와 의사소통역량,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역량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22>는 먼저 학업성취도와 자아탄력성의 상관을 분석한 표이다.

<표 22> 학업성취도와 자아탄력성의 상관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 평균	자아탄력성 1번 문항	자아탄력성 2번 문항	자아탄력성 3번 문항	자아탄력성 4번 문항
전체 학업성취도	.262(**)	.204(**)	.178(**)	.185(**)	.268(**)
국어	.205(**)	.164(**)	.151(**)	.161(**)	.181(**)
수학	.190(**)	.142(**)	.130(**)	.141(**)	.194(**)
영어	.199(**)	.160(**)	.131(**)	.141(**)	.204(**)

학업성취도와 자아탄력성의 전 문항은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ovotny & Váchová(2016)은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탐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긍정적 사회적 관계와 지원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게 되면 학업 성취에서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김성봉, 성나미, 강진숙 외(2017)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낙관성의 조절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들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는 자아

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므로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학습지 지원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학업 위기 청소년들에게 더욱 요긴한 작용을 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성취도와 의사소통역량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23>이다.

<표 23> 학업성취도와 의사소통역량의 상관 분석 결과

	의사소통 평균	의사소통 1번 문항	의사소통 2번 문항	의사소통 3번 문항	의사소통 4번 문항
전체 학업성취도	.262(**)	.204(**)	.178(**)	.185(**)	.268(**)
국어	.205(**)	.164(**)	.151(**)	.161(**)	.181(**)
수학	.190(**)	.142(**)	.130(**)	.141(**)	.194(**)
영어	.199(**)	.160(**)	.131(**)	.141(**)	.204(**)

이 표에서도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사소통역량에 대하여 교육부(2015)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알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줄 아는 능력으로 보았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조리 있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이를 이해하는 능력은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은 다른 이의 생각이나 사고를 말이나 글을 통해 습득하고 이를 이해하며 또 자신의 언어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

임영아(2004)는 보건계열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업성취도의 평균이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의사소통능력 및 눈치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학업성취도는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였고 눈치와도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 이한샘, 서은희(2018)는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자기조절능력,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이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다만 학업성취도에 대한 의사소통능력 및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사소통역량과 자아탄력성의 상관 분석의 결과는 <표 24>이다. 이들의 상관도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의사소통역량과 자아탄력성의 상관 분석 결과

	의사소통 전체 평균	의사소통 1번 문항	의사소통 2번 문항	의사소통 3번 문항	의사소통 4번 문항
자아탄력성 평균	.490(**)	.427(**)	.470(**)	.414(**)	.425(**)
자아탄력성 1번 문항	.350(**)	.305(**)	.350(**)	.281(**)	.303(**)
자아탄력성 2번 문항	.403(**)	.340(**)	.384(**)	.355(**)	.347(**)
자아탄력성 3번 문항	.426(**)	.361(**)	.398(**)	.373(**)	.376(**)
자아탄력성 4번 문항	.388(**)	.357(**)	.369(**)	.315(**)	.333(**)

허지연(2004)에서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촉진적 의사소통의 능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촉진적 의사소통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로 높았다.

김지선(2014)은 237명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의사소통능력 및 교사-유아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 간 관계를 밝힌 홍지명(2015)에서도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중다회귀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구성 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이 의사소통 능력의 43%를 설명하였다.

즉 학업성취도와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와 의사소통역량,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역량은 각각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역량의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학업성취도가 높거나 낮은 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첫째, 학업성취도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자아탄력성의 결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어려움이나 고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을 통제하고 빠르게 자아의 안정성을 찾으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만큼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뛰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자아탄력성도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둘째, 학업성취도와 의사소통역량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업성취도가 높아질수록 의사소통역량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성취도 집단별 의사소통역량의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학업성취도 A집단에서 의사소통역량이 가장 높았고, E집단으로 성취도가 떨어질수록 의사소통역량 평균이 낮았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역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보인다(채명옥, 2016; 김유정, 박지혜, 안선희, 2012). 인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역량도 자아탄력성과 깊은 상관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정미영, 2020)

학업성취도는 단지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인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차이의 요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며 이를 통해 교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역량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학업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자아탄력성인 만큼 낮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의사소통역량이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취도에도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사소통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동학습, 모둠 활동 등의 학습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김성봉, 성나미, 강진숙.(2017).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8), 145-151.
- 김유정, 박지혜, 안선희(2012). 보육교사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그리고 가정 연계 효능감이 부모-교사 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학회**, 33(5), pp.71-89.
- 김은주(2013).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학업성취수준별 차이.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주, 이시자(2015).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4), 281-300.
- 김지선(2014).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능력 및 교사-유아관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형훈(2023). 태권도 교육을 통한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다문화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 박은희(1997).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
- 반상진(2024). 초·중학교 학생의 사회적 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서원석, 장재혁, 김석우. (2020).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대한 중단연구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교육문화연구**, 26(2), 625-649.
- 신지은(2014). 가족건강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미향(2005). 의사소통 활동중심 교수학습을 통한 수학 학습 부진아 지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왕중산(2024). 물리치료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8(5), 121-131.
- 이나영(2008) 청소년의 자가 결정성 동기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와 자아탄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 이민상(2005).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업성취도 및 진로성숙도의

-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희, 이혜진(2018).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12), 297-309.
- 이한샘, 서은희(2018),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조절 능력,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5), 959-975.
- 임영아(2024). 보건계열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눈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HSC)**, 6(1), 829-841.
- 임현주(2014). 수학 학습 부진아에 대한 의사소통중심 수업이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교.
- 임효진, 김재철(2014) 중학교 학생들의 성취가치, 자기조절, 학업적응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학회**, 21(6), 161-190.
- 정미영(2020). 예비방송인들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579-589.
- 정은선(2017). 교사-학생 의사소통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조한익, 이나영(2010).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6), 1-20.
- 채명옥(2016).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능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95-103.
- 한상단(2012). 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교류연구** 1(1), 111-134
- 허지연(200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및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홍지명(2015). 유아교사의 행복감 및 자아탄력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연구. **인문사회** 21, 6(3), 591 - 608.
- 황혜자, 최윤희(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2(1), 285-304.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Conneedy, L. M. & Tipps, S.(1994). *Guiding childrens' learning mathematics*.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Connell, J. P., Spencer, M. B., & Aber, J. L. (1994).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youth: Context, self, action,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5, 494-506.

Dębska-Janus, M., Dębski, P., Nawrocka, A. et al. (2024). Exploring the connection between ego-resiliency and health behaviors: a cross-sectional study of Polish health sciences students. *BMC Psychiatry* 24, 168. <https://doi.org/10.1186/s12888-024-05617-2>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

Luthar, Suniya. (2006). Resilience in Development: A Synthesis of Research across Five Decade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3. 10.1002/9780470939406.ch20.

Novotny, Sebastian & Váchová, Lucie.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academic performance at youth placed at risk. *Československá psychologie*, 60. 553-566.

O'connell-Higgins, R.(1983).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The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Rubin, R. B.(1990). *Communication competence*. In. G. M.Phillips &

J.T.Wood(Eds.),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Zimmerman, M. A., & Arunkumar, R. (1994). Resiliency research: Implications for schools and policy.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8*, 1-19.